

「고추밭」

고추밭

시드른 높새 속에서

시들은 일새 속에서

고 빨—간살을 드러내 놓고,

고 빨—간 살을 드러내 놓고,

고추는 芳年된 아가씬양

고추는 방년된 아가씬 양

빽볕에 작고 익어간다。

빽볕에 자꾸 익어간다。

할머니는 바구니를 들고

할머니는 바구니를 들고

밭머리에서 어정거리고

밭머리에서 어정거리고

손가락 너어는 아이는

손가락 너어는 아이는

할머니 뒤만 따른다。

할머니 뒤만 따른다。

一九三八、十月、二十六日、

1938. 10. 26.